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자료

먼저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2.5%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적 빈곤,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 빈곤 청년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가파른 집값 및 방값 상승은 20대는 물론 30대들에게도 헬조선, 전세 난민이라는 말들을 낳게 하면서, 심지어 서울을 떠나게 하는, ‘탈서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숙, 사회초년생주택, 신혼부부전용주택, 대학생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해왔지만 그러나 공급물량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공공주택 건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로 ‘민간’과 ‘역세권’을 결합시키는 방안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뜻을 모아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은 그렇게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청년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에서 역세권에 각종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해 주고, 민간이 100% 임대주택을 짓도록 지원하면서 일정 비율을 청년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역세권 민간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건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이었습니다.

기한이 없어서 사업추진 없이 땅값만 올리는 단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과거와는 달리 대상지 범위를 250m로 한정해, 이미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도 갖추었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도 용이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추진 가능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가 상승등의 문제를 고려해 3년 한시기간 동안 운영하되 그 기간동안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부서가 지원하는 체제를 가동할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과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